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23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1. 일시 :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2. 장소 : 온라인(ZOOM) 회의

3. 임원 출석 현황

○ 상임이사회 재적인원 59명 중 45명 참석

－ 출석: 45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회장	조송현	상임이사	김민수
부회장	강현민		김상유
	권형일		김태희
	김기한		백승현
	김애량		변경원
	김일광		방신웅
	김종백		신홍범
	김진국		정태욱
	남상백		최의열
	이승환		김매이
	이정학		박찬민
	임충훈		한준영
	정호원		홍은아
	조성균		김육기
	조용찬		김인재
	주종미		김화룡
최윤석	엄대영		
당연직 부회장	김상훈		하제현
부회장 / 사무총장	조우정		강호정
부회장 / 편집위원장	한진욱		추나영
지부장	김도균		허영진
	정병기		권웅
			이원재

※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정관 제5장 제32조)

4. 안건

4.1 보고사항

- 사무국 관련 사항
- 편집국 관련 사항
- 2023년도 학회 회원 및 임원 현황
- 2023년도 등기이사 변경 안내
- 2023년도 임원변동 사항

4.2 심의 및 의결사항

- 2023년도 신규 이사 선임 건
- 2023년도 사업계획(안)
- 2023년도 예산(안)
- 기타
 - 20대 회장 선거 일정(안)
 - 정기총회 학술대회에 발표 추가(안)
 - 2024년 ASSM 국내 개최 건 등

5. 회의 내용

5.1 2023년도 신규이사 선임 건

- 2023년도 신규이사 선임(25명)

▶ 조우정 사무총장 설명

-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신규이사가 추천되었음. 추천된 분들에 대해 사무국에서 이사추천 조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없었음. 또한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이력서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 ▷ 조송현 회장 설명
 - 말씀드린 대로 이력서는 우리 학회 형식에 맞춰서 모두 제출하였음. 개인당 2~3장 정도가 되고, 이력서 첫 면에는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도 있고, 추천하신 분들도 상임이사 이상의 임원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 결론
 - 원안대로 2023년 신규이사 선임 건을 의결함.

5.2 2023년도 사업계획(안)

- ▷ 조우정 사무총장 설명
 - 제1차 상임이사회
 - 춘계학술대회, 제2차 상임이사회 및 제1차 이사회
 - 아시아스포츠경영학회
 - 전국체전 학술대회(3차 상임이사회 및 2차 이사회는 미개최)
 - 동계학술대회, 제4차 상임이사회 및 제3차 이사회
 - 정기총회

- ▶ 결론
 - 원안대로 2023년 사업계획(안)을 의결함.

5.2 2023년도 예산(안)

- ▷ 조우정 사무총장 설명
 - 학회 재정 현황 보고
 - 2023년도 실행예산(안)
 - 운영비, 경상비, 사업비 등에 대한 보고
 - 이월 예상 금액에 대한 보고

- ▷ 조송현 회장 설명
 - 예산(안)은 매년 하는 방식이고, 특이한 점은 사무국을 부산대로 소재

지를 변경하면서 기존 법인 사무국에 임대료를 지불했었던 금액을 감액할 수 있게 됨. 이와 관련하여 법무사, 세무사에 확인한 결과 부산대로 옮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나머지 기타 운영비 부분도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줄이도록 하겠음.

▶ 결론

- 원안대로 2023년 예산(안)을 의결함.

5.3 기타 안건

○ 20대 회장 선거 일정(안)

▶ 조송현 회장 설명

- 파랑색으로 표시된 일정은 확정된 일정이 아님. 11월 25일에 정기총회를 한다면 그 일정을 가정해서 한 주, 두 주 앞당겨 공지, 입후보 마감, 선호도 조사 등의 일정을 예상하여 작성된 것임. 또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분이 있어서 날짜가 정해지면 이 정도의 날짜로 준비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결론

- 20대 회장 선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지만 선거방식은 제시한 대로 그대로 유지하겠음.

○ 전국체전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정기총회 학술대회 발표 추가(안)

▶ 조송현 회장 설명

- 의견을 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 학회를 할 때 항상 주제에 따른 발표만 이루어져서 대학원생들의 학술 발표가 우리 학회 차원에서는 없었음. 작년에 가장 많이 참가해주신 교수님들께 의견을 여쭙어본 결과 전국체전도 참가하고, 우리 정기총회 때 진행되는 학술대회 때도 대학원생 발표가 있다면 참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추계가 될지 동계

가 될지 모르겠지만 2학기에 있을 정기총회가 있는 날 학술대회 때, 대학원생의 학술 발표도 포함시키고 또, 원생들의 발표를 심사해서 우수한 발표는 시상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함.

구체적으로 첫째 날에는, 학부생 공모전과 대학원생 학술 발표 그리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일정을 소화하고, 둘째 날에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학회 자체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자 함.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의 윤곽은 보시는 바와 같음.

▶ 결론

- 전국체전 학술대회에도 참가하고, 정기총회 때 있을 학술대회에 대학원생들의 발표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음.

○ 2024년 AASM 개최 건

▷ 조송현 회장 설명

- 2024년에 아시아스포츠경영학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건가에 대한 내용임. 이와 관련하여 최윤석 부회장님이 말씀해주시겠음.

▷ 최윤석 부회장 설명

- 2017년도에 평창에서 개최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때가 된 거 같다고 생각함. 지난주에 AASM 임원회의를 타이페이 국립대학에서 개최했었음. 4월에 학회 차원에서 AASM 개최 가능 여부를 알려줘야 함. 상임이사 선에서 논의를 하고 나서 의사를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함.

▷ 조송현 회장 설명

- 이 건은 가결해야 할 거 같음. 만약 AASM을 개최하더라도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어야 하며, 최윤석 교수님을 중심으로 준비가 잘되어야 함. 이런 국제 학술대회는 연구재단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옴. 그런 자료들을 잘 만들어서 연구재단에서 지원도 받고, 학회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수입으로 잡힐 수 있게 하겠음.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 ▷ 임원 답변
 -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 결론

- 2024년 AASM을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신규 위촉된 상임이사의 회장 선거인명부 당해연도 제외 건

▷ 김일광 부회장 설명

- 주요 내용은 회장님께서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상임이사분들을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함. 다만 우리 학회가 몇 년 전부터 학회장 선거를 해왔기 때문에 자칫 회장님께서 위촉하신 분들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나 선입견, 불신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당해연도 회장 선거 관련되어서 올해 위촉되신 분은 선거인명부에 미포함하고 회장님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집행부에서 훌륭한 분을 위촉한다는 취지와 회장 선출 공정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임.

▷ 김상훈 부회장 의견

- 저도 작년에 온라인으로 회장선거에 투표를 했음.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투표권이 이사진에서만 한해 있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그게 아니라 회원 전원이 정회원 이상 투표권이 있다면 이사 선임추천과 회장 선거와는 별개인 거 같아 보임.

▷ 조송현 회장 답변

- 저희가 두 번의 선호도 조사를 함. 그래서 올해는 선호도 조사가 안되기를 희망함. 회장을 하실 분들이 미리 말씀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한 분이 추대되는 형태를 띄게 되는 방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함. 김상훈 부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로 한다는 그 자체가 룰에 맞지 않음. 김일광 교수님의 말씀이 우려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당하나, 이미 그렇게 되면 불공정 인식도 되는 것 같음. 상임이사로 활동은 할 수 있으나 투표권이 없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같음.

▷ 강현민 부회장 의견

- 만약 상임이사로 선임된 분들에 대해 '해당 연도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겠다' 라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먼저 명시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적합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서 학회 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면 그 선임 이후에 기존의 관례에 해왔던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의견임.

▷ 정호원 부회장 의견

- 이것과 관련하여 한국체육학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 우리 학회에서 상임이사가 되기 위해서 몇 년간 임무를 수행하는 분에 한해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으므로 굳이 그 분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조송현 회장 답변

- 이 부분은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회장 입장에서 우리는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지 않지만 공정하지 않는 선거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음. 선거까지 8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공정하게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음.

▷ 김일광 부회장 답변

- 상임이사 임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위원회 안건으로 드렸으므로 위원회 내에서 결정하면 될 거 같음.

▶ 결론

- 기존 해왔던 방식대로 진행함.

○ 춘계학술대회 일정 등 기타 안건

▷ 조송현 회장 설명

- 춘계학술대회 일정

- 논문심사비 조정
 - 논문게재료 조정
 - 연구비 수혜논문(사사표기) 게재료 조정
- ▷ 한진욱 부회장/편집위원장 부연 설명
- 사실 심사료에 대한 증가 부분은 최근 논문들에 대해 저희 논문심사 기준을 보면, 한 분이 수정후게재, 또 한 분이 게재불가를 하면 3심으로 넘어감. 2021년에는 3심이 12편, 2022년에는 11편 등 3심이 꽤 많았음. 3심 하는 분에 대해서도 심사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심사료 5만원으로는 부족함. 올해에도 25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야 함. 때문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했을 경우 충분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상임이사분들이 고려해주시면 좋겠음. 또한, 타학회지들은 우리 학회지보다 높은 심사료가 책정되어 있으며, 게재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이지 관계없이 20만 원인 것은 장점으로 보임. 다른 학회지는 게재료가 비싸다 보니 회피하는 경우도 있음. 연구비 수혜 논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거 같음.
- ▷ 조송현 회장 의견
- 이와 관련하여 상임이사님들의 단독방에 투표 공지를 하겠음.

